

<2014년 1월 24일 금요일 씨티엔 선생님 새벽말씀>

할렐루야 !

선생님은 부지런함에 대해서, 그리고 게으름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해보고 많이 겪어보기도 했습니다. 게을러서 얻지 못해서 3년 후에 얻은 것도 있습니다. 그때는 몸부림을 치고 이를 갈면서 얻었습니다. 그 후로부터 깊이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게으름은 너무 무섭구나. 저주로구나!’

게으름에 대해서 두 가지로 분석을 해서 말씀하겠습니다.

“추수 때에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받는다.”

자는 것은 육신이 피곤해서 자는 것이 있고, 또 하나는 영적으로 졸리기도 합니다. 흑암, 어둠들은 항상 방해를 합니다. 생리적으로 졸리는 것, 영적으로 흑암들이 방해해서 졸리는 것 이 두 가지로 크게 볼 수 있습니다. 흑암들, 마귀, 사탄, 귀신들은 모든 것을 방해합니다. 나는 그것을 수백 번씩 경험했습니다. 여러분은 경험 안 해봤습니까? 마귀가 졸게 하고 귀신들이 졸게 합니다. 상대성의 이치로 그렇게 합니다. 정말 졸 때가 아닌데 막 졸음이 올 때는 흑암, 사탄들이 오는 것이 있습니다.

생리적으로 몸이 힘들고 어려워서, 피곤해서 조는 것이 있습니다. 과로했을 때 밥 먹고 나면 피로해서 막 조는 순간, 잠을 잘 시간이 되어서 피로한 것,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밤새도록 잘 자고, 아침밥도 잘 먹고 교회에 왔는데 예배 시간만 되면 졸리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마귀가 하는 것이고, 귀신과 사탄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사탄아, 귀신아, 너희들을 내가 책망한다.”

이를 깨닫고 모두 각자는 자기 때에 졸지 말기 바랍니다. 추수 때에 졸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다른 때는 멀쩡하게 가만히 있다가 말씀 들을 때나 기도할 때만 되면 막 조는 사람이 있습니다. 땡땡 뒤로 넘어지고 앞으로 자빠지고 그러니까. 겨울철이 돼서 이제 그런 것은 조금 덜 할 것입니다.

신앙적으로 볼 때 조는 것은, 자기 기도 생활을 안하고 자기 책임을 못함으로 조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자기 책임분담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도 있

고, 또 하나는 마귀 사탄 귀신들이 신앙이 줄게 죽게 합니다. 줄다는 것은 죽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것들이 신앙을 죽게 한다고 크게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알고 열심히 하기를 바랍니다.

나는 분석가입니다. 제 이름의 ‘석’자는 ‘쪼갠 석(析)’ 자입니다. 나무 목(木)에 도끼(斤) 변입니다. 그래서 탁탁 쪼개어 나갑니다.

사탄과 마귀를 경히 여기지 말고 하라는 것입니다. 마귀는 사탄보다 더 강하고 무섭게 지랄들을 합니다. 귀신들, 악령들. 악령들의 주관을 받으면 악한 사람들이 돼서 엄청나게 본의 아닌 일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보이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악한 마귀들을 측정할 수 있고 알 수 있습니다.

두가지 크게 보고 행하자.

반드시 자기 때가 있는데 그 때에 꼭 하라! 안 하면 큰일 난다! 밥을 먹지 말지라도, 잠을 자지 말지라도 꼭 하라! 이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한 주일 동안 말씀을 연속 할 것입니다. 오늘 주제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자기 때”라고 했습니다. 자기 때에 꼭 하는 사람이 성공하고 잘되고 형통합니다.

‘언제가 내 때인가?’ 잘 모를 것입니다. 우리끼리 따질 때 나는 하늘이 보낸 시대의 신랑이요, 여러분은 신부입니다. 또 하나님과 따질 때는 나는 신부요, 하나님은 신랑입니다.

‘언제가 우리 때인가?’

“내가 외치지 않느냐. 빨리 부지런하여라. 빨리 하라!”

본인들이 모르니까 지금 외치는 것입니다.

이제 겨울철이 왔습니다. 한국은 이 눈보라가 쏟아지기 전에 3,130명을 수료시켰습니다. 이제 눈이 쏟아지니까 여러분은 보람이 있을 것입니다. ‘야~ 저 밭의 식을 거둬들이듯이 내가 생명을 거둬들였으니 다행이다.’ 그럴 것입니다. 다행한 일입니다. 이 눈보라칠 때 거리에 돌아다니면서 추수하려고 하니까 생명들이 어디 있습니까? 다 들어갔습니다. 추우니까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추우면 딱정벌레도 들어가고 추우면 벌거지도 땅속으로 기어들어가서 볼 수가 없습니다.

이와 같이 자기 때에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겨울철에 전도

하려고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볼 때 행한 사람은 보람 있을 것입니다.

“자기 때에 꼭 하도록 하라. 자기 때에 못 하면 안 된다.”

그 다음 또 하나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계에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어서 겨울철에는 추수할 수 없습니다. 육적으로 따지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겨울은 언제인지 우리가 잘 모르지 않습니까? 이제 그만 자고 쉬라, 그런 때가 겨울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겨울은 언제입니까? 한 때 두 때 반 때, 무덤기간! 이런 때를 영적인 겨울이라고 특히 분별할 수 있고 쪼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런 계절과 상관없이 때가 있습니다. 자기의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역시 봄이라는 것입니다. 그 때는 추수하는 때라는 것입니다. 눈이 쌓였다고 해서 “이제 추수할 것 없어.”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곡식을 거두는 농부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생명을 거둬들이는 하늘의 일꾼들이고, 하늘의 생명의 사역자들이니까 눈이 쌓였을지라도 전도할 때가 되었으면 전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알겠어요.

자기 전도의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자기도 움직여야 되지만 그 전도를 해야 될 대상이 왔다 갔다 하고 자꾸 앞에 보입니다. 그때는 낮을 휘둘러 곡식을 거둬들이라는 느낌이 옵니다. ‘익은 곡식을 거둬들여라. 거둬들여야 되겠다.’ 이와 같이 느낌이 옵니다.

어떤 곡식은 좀 덜 익었는데 거둬들여야 됩니다. 남이 베어가게 생겼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베어 와야 됩니다. 어떤 참외는 덜 익었지만 따가야 될 때가 있습니다. 따서 집에 갖다 놓고 익기를 바라야 될 때가 있습니다. 어떤 과일은 덜 익었는데 따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조그맣게 덜 익었을 때는 안 따가지만 아무래도 어느 정도 익게 되니까 지나가는 사람이 따가게 생겼기 때문에 따오는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지혜롭게 늘 살피다가 자기 때에 거둬들여야 됩니다. 곡식들이 가을이 되면 “나를 베어가라!” 하고 소리를 치지 않습니까? 과일들이 익어서 “나를 따 달라!”고 소리 지르는 소리가 안 들립니까? 개가 도둑이 오면 짖고 낮 설은 사람이 오면 짖듯이 곡식들도 역시 자기 주인이 오기를 기다리고 추수자를 기다립니다.

생명을 추수하는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계절은 육적인 계절

과 같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때가 되면 아무 때나 바로 전도를 해야 됩니다. 안 하면 안 됩니다. 전도자가 전도를 못하면 그 사람이 10분 있다가 죽는 수도 있고 20분 있다가 죽는 수도 있습니다. 전도를 하면 안 죽습니다. 전도를 얼른 해버리니까 안 죽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도자들이 얼마나 위력 있고 얼마나 하나님의 그 운을 가지고 돌아다니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따지기 때문에 꼭 화를 받을 사람도 말씀을 전해서 그때에 그 사람이 따르면 죽을 운도 확 돌아가 버립니다. 죽지 않게 됩니다. 가만히 놔두면 그 사람 스스로의 힘을 가지고는 하늘 운을 타지 못하기 때문에 역시 생명을 뺏기는 수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간 사람과 일체되면 하나님과 그와 일체된 격이 되기 때문에 큰 운이 돌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의 운, 진리의 운이 그렇게 큼니다. 그런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자들은 부지런히 생명의 사람을 찾고 인도해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가지 않으면 그들의 운이 돌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야 그들의 인생의 운이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인생의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자기 때에 열심히 하라! 자기 때에는 남이 자든 졸든 그것 쳐다볼 것 없이 자기가 열심히 하면 되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때가 각각 다릅니다. 전부 다릅니다. “나는 일하는데 너는 왜 쳐다보고 놀고 있느냐?”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자기만 열심히 하면 됩니다. 그 사람의 때가 따로 있습니다. 자기 때에 옆의 사람은 그 심정을 모르는 것입니다.

자기 때에 자기가 하고, 자기가 거둬들이고, 자기가 복을 받고, 자기가 기쁨을 누리고, 자기가 보람을 누리는데 왜 자꾸 옆의 사람을 보고 “왜 너 자느냐?” 합니까? 그 사람의 때는 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옆사람 보고 이렇다 저렇다 하지 말고, ‘나는 열심히 전도하고 나는 열심히 교회에 충성하는데 왜 안 하지?’ 하며 시험들 것도 없습니다. 그것은 무리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잘 모르는 생각들입니다.

“자기 때에만 열심히 하라. 그러면 잘되고 형통된다.”

믿습니까?

장년부 어른들부터 시작해서 , 축복가정들, 그리고 중고등부 10대들 뿐만

아니라 20대, 대학부들, 청년부들 모두 겪어봐서 알지 않습니까? 자기 때에 했을 때는 너무 잘 되었는데 자기 때가 지나가서 했을 때는 안 된 것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꼭 그 때에 해야 됩니다.

오늘날 이 시대 사람들은 하나님의 때를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는, 성약의 역사가 선포되어서 세례요한의 역사가 지나갔고 하나님의 메시아의 역사가 벌써 진행 중인데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때를 모르고 살고 있습니다. 막 외치고 다니고 야단쳐도 그들은 모르고 살고 있습니다. 불신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외면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시대적으로 보면 예수님 때도 그러했고, 모세 때도 그러했고, 노아 때도 그러했고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면 외면들을 하고 극적으로 반대하는 일들이 옛적부터 계속 있었습니다. 마귀 사탄 귀신들이 이에 더욱 혈안 되어서 같이 동참하고 합동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에 우리는 아는 사람들이니까 더 힘 있게 전하고 더 소망 있게 전하고 더 확실하게 전하고, 이끌어내고, 추진력 있고 설득력 있고 감동력 있게 행하면 그들이 다 오게 되어 있습니다.

시원찮게 복음을 전하면 안 됩니다. 이 위대한 말씀을 힘 있게, 강하게, 담대하게, 희망 있게, 소망 있게 쪽쪽 전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심리적으로 비전 있는 곳이라고 생각하고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었는데 그 때를 모르고 있고 잠을 자고 있습니다. 우리가 외쳤어도 그들은 외면까지 했습니다.

자기 때를 꼭 추수 때라고 생각하면서 부지런히 해야 되겠습니다. “자기 때, 추수 때다! 추수 때는 자기 때를 말한다.” 이것을 알고 시대의 말씀을 좇아 열심히 행하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를 지키라고 한 주일동안 연속해서 강하게 말씀하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말씀했습니다.

“때를 꼭 지켜라. 안 지키면 안 된다. 생각해 보라. 과거에 때를 지켜서 했을 때는 얻었고, 때를 못 지켰을 때는 엄청난 것을 못 얻었지 않느냐? 때에 타다탁 행해 나가라.” 믿습니까.

다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축 도>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추수 때는 바로 내 때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겪어봐도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밤중일지라도, 밥을 못 먹었을지라도, 졸릴지라도, 피곤할지라도 내 때가 왔으면 부지런히 뛰어나가서 그 일들을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생활 가운데 때에 못함으로 치명적인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 때를 거울삼아 부지런히 행하게 해주시옵소서.

이러므로 오늘 말씀을 온 섭리사에 선포하고 한 주일동안 말씀하실 우리 하나님, 이 말씀을 듣고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옵나이다. 온 지구촌에 있는 섭리나라 사람들이 하나님을 존귀케 하며 거룩히 여기며 감사하며 두려워하며, 온 상천하에 하나님 같은 신이 감히 하나도 없으며 만분의 일도 따를 자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그러하옵나이다. 하나님과 성령님과 예수님이 날마다 섭리역사에 능력과 권능으로 임해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과 성령의 감동감화 역사하심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하심과 내 간구한 간구가 이 모든 이들에게 함께하며 온 섭리를 따라오는 자들에게와 앞으로 들어올 모든 자에 이르기까지 충만하고 영원할지어다. 아멘.